

네트워크회의
인권활동가네트워크워크숍

아프간특별기여자에 대한
지역 학부모 반발과 교육청의 대응

박영철
[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]

1. 배경

- 2021년 8월,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재집권함에 따라 대사관, 병원 등에서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을 ‘미라클작전’을 통해 한국에 입국,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함
- 2022년 2월, 29가구 157명이 울산 동구 지역에 취업을 위해 집단 이주함
- 문제는 이에 대한 사전 소통 부재, 정보 미공유 등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강하게 촉발됨

2.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

- 초등학교 배정이 집중된 서부동 지역 학부모 집단 반발
 - : 소통 없는 일방적 통보, 언어소통 문제,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 등
 - : 초등학생 28명 배치 예정인 서부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적 반발이 이어짐
- 학부모들의 요구사항
 - : 서부초에 집단배치 절대 반대와 아프간 아동들에 대한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로 보내라고 요구
 - : 이슬람 문화에 노출되는 자녀들에 대한 우려 표명 (혐오 확산)

3. 울산교육청의 대응

- 교육부, 법무부 등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학령기 아동 공교육 진입 지원에 대한 협조 요구
- 현대중공업 중앙아파트에 집단 입주하며 지역에 정착(2022년 2월 7일)
- 울산교육청은 2022년 2월 8일 <아프간 자녀 공교육 지원 TF>를 구성하고, 교육협력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‘서부초 교육공동체 소통 참여 협의체’를 구성(2월 11일)하여 학부모 요구사항 및 민원에 대한 소통창구를 강화
-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인 서부초 배치 반대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취학 요구에 대해 교육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개최함
- 또한 아프간 학부모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의 희망사항을 취합하여 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 대응을 강화함
-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2월 24일 <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 지원 방안>을 수립

4. 공교육 지원사업 결과

- 2022년 3월 21일 학령기 아동 85명 전원 취학
 - : 유치원 16명, 초등학교 28명, 중학교 19명, 고등학교 22명 등
- 공교육 지원을 위해 총 90명의 인력지원과 25억 7천6백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
- 한국어 학급 등 특별반을 운영했으며, 급식 지원, 통학 지원, 학생복지 지원 등 실시
- 교육청과 배치학교 지원인력 및 교직원 대상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및 연수를 시행
- 울산교육청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 학부모, 아프간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 교실 실시
- 관계기관의 역할 강화
 - : 동구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부모 대상 학부모 교육 실시하여 정착에 대한 지원을 시행

5. 울산지역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주는 시사점

- 갑작스러운 이주 소식에 해당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
: 울산시는 물론 울산동구청, 울산교육청 등을 통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공유되지 못한 채 지역 언론을 통해 집단이주 뉴스를 접함
-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통을 요구했지만, 해당 기관 등에서 소통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강화 됨
- 동구의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‘이슬람 혐오’를 부추겨 학부모들의 ‘불안감’을 부추김
- 법무부, 국가정보원, 울산시 등 정책을 결정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, 권한도 없는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
- 교육감의 적극적 중재와 책임 있는 행정추진으로 집단반발은 해결되었지만, 기존 재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
-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
-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수급 등 노동정책과 결합되면서, 지역 내 혐오를 부추기던 보수기독교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됨.